



축구 응원 열기에 유통업계 매출도 ‘후끈’

‘U-20 결승전 효과’ 대형마트 축구용품 매출 전년비 30%대 ↑
호텔서 축구 관람 ‘축캉스’ 인기...편의점 술·안주 매출 5배 ↑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16일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지역 유통업계도 응원 열기에 반짝 특수를 누렸다.
이날 광주지역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6월 1~13일 축구공·축구화·정장이 보호대 등 축구용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3.3%·19.6% 증가했다. 마트 관계자는 “FIFA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형 대회가 아니었고 관련 판촉행사가 없었음에도 지난해보다 매출 증가세가 뚜렷했다”며 “이는 U-20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CGV 광주터미널점과 롯데시네마 수완점은 이날 새벽 1시 결승전을 생중계하며 심야 고객층을 겨냥했다. 이들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은 각각 입장료 1만원에 대형스크린으로 경기를 즐겼다.
주요 축구 대회 때마다 치킨집과 호프집 등 음식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과 같은 광장이 통상적인 관람장소였다면, 최근에는 대형 TV가 설치된 호텔도 새로운 단체 관람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의 경우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삼삼오오 호텔을 잡아놓고 TV로 관람하는 이른바 ‘축

캉스’(축구+바캉스)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지역 축구교실에는 자녀가 ‘제2의 이강인’이 되길 꿈꾸는 학부모들의 문의전화도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시 동구 서석동에 문을 연 한 축구교실에서 강습을 펼치고 있는 박수환(27) 지도사는 “한국이 U-20 월드컵 8강에 진출한 6월 초 순부터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2배 더 오고 있다”며 “결승 진출을 이끈 이강인(18·스페인 발렌시아)의 외가가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달 음식과 편의점 야간 매출도 응원전에 힘입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CU(씨유)는 결승전을 앞둔 15일 밤 9시부터 16일 0시까지 매출을 분석

한 결과, 주요 상품들의 매출이 전주 대비 최대 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제품은 조각 치킨·닭고기꼬치·치킨너겟 등 튀김류로, 전주와 비교하면 442.5%(5.4배) 뛰었다.
맥주 매출 역시 188.6% 증가했고 아이스 드링크와 얼음도 각각 130.1%, 166.7% 더 팔렸다. 심야 경기에 대비하기 위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와 에너지음료도 각각 59.3%, 72.0% 매출이 늘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배달의민족은 결승전 전날인 15일 하루 단위 주문 수가 150만 건에 도달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치킨으로, 평소보다 1.5배 많은 주문이 15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의 ‘위기의식’

이재용 부회장 부문별 현장 순회...“10년 뒤 장담 못해”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그 동안의 성과를 수성(守城)하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각 부문별 현장을 돌며 ‘위기 경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와 전자계열 관계사 사장단을 잇따라 소집해 미래를 대비하는 부문별 경영 전략 및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14일에는 IM(IT·모바일) 부문 사장단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7일 삼성전기, 이후 CE(소비자가전) 부문 사장단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4일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IM부문 사장단으로부터 전달 열린 ‘IM부문 글로벌전략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첨단 선행 기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IM부문의 하반기 경영 전략을 재점검하고, 어떠한 경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5G 이후 6G 이동통신, 블록체인, 차세대 AI 서비스 현황과 전망은 물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17일에는 삼성전기를 방문해 전장용 MLCC(적층세라믹커패시

터)와 5G 이동통신 모듈 등 주요 신사업에 대한 투자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이어 광주사업장이 포함된 CE 부문 사장단 및 타 관계사와의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이 부회장의 ‘사내 일장’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일상적으로 소화하는 경영 일정을 일일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었고, 다른 그룹 총수의 경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부 회의 일정은 밖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의식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중 통상전쟁과 이에 따른 화웨이 사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다운턴(하락국면) 장기화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처방은 물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39주년’ 광주세관, 유공직원·관세행정 협조자 포상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 14일 정부청사 11층 강당에서 개청 제3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거행하고 유공 직원과 관세행정 협조자 등 12명을 포상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1957년 1월 25일 목포세관·광주감시서로 출발한 이후 1980년 6월 14일 개청, 올해로 39주년을 맞는다.
이날 기념식에는 FTA활용 수출기업의 검증 피해 방지에 기여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 등 9명과 관세행정 협조에 공헌한 3명에게 각각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자율에 입각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발전하는 광주세관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현재 대전·광주 등 2개 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제주도까지 우리나라 국토의 약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서남부 내륙과 공항만을 관할하는 중추세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김광호 광주본부 세관장(가운데)은 지난 14일 광주청 개청 39주년을 맞아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 광산업-네일아트 ‘상생’으로 승부수

DJ센터서 네일엑스포...광의료 등 업무협약 특화산업 육성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산업과 뷰티산업의 네일아트를 연계한 특색 있는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세번째로 열린 광주네일엑스포는 지난 14~16일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의 광산업과 뷰티산업의 네일아트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네일엑스포에는 국내 네일(손톱) 기기와 관련 제품 생산 제조업체 38개사가 참여했으며, 네일리스트와 미용 관련업 종사자 등 3000여 명이 다녀갔다.
네일아트 경연대회와 작품 전시가 이뤄졌고, 국내외 유명 네일리스트가 강연하는 기술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와 네일마용업중

양회, 광의료산업협동조합, 광주뷰티산업협동조합 등은 지난 14일 연구개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테크노파크와 네일미용업중앙회는 광주지역 의료기기와 헬스케어기기를 제조하는 광의료산업조합, 뷰티산업조합과 네일 산업 관련 제품 연구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네일샵은 2015년에 6000개 수준이었으나,

2018년 1만3258개로 3년 만에 약 120%를 웃도는 급증장을 하고 있다. 국내 네일아트 시장규모도 2018년 기준 약 3500억원, 업계 종사자도 13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네일샵이 약 600개가 있으며,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김성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광주 네일 분야는 광의료 분야와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첨단 광의료 기술과 네일아트가 접목, 특화된 산업이 육성되면 광주 일자리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모바일 앱으로 우리집 전기요금 확인

한전, 미리보기 서비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실시간으로 당일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려워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한전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14일부터는 소비자가 모바일(‘스마트 한전’ 앱)과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에 접속해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해당 서비스는 APT 개폐세대 등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며, 간단한 접속과 수치 입력으로

이번 달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알려주고, 사용량 추이 및 과거 사용량과의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86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
16	21	28	35	39	43	12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일치	2,853,357,322				7
2	5개 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52,014,327				64
3	5개 숫자일치	1,630,224				2,042
4	4개 숫자일치	50,000				104,949
5	3개 숫자일치	5,000				1,753,097

에너썬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시, 음악, 그림으로
일상에 문화숨표 찍어주기

- 친절한 감상, 해설 프로그램들 인기
- '마티네 콘서트' 열기 ACC 브런치 콘서트
- 온라인 세상에 꽃피는 '시 르네상스'

원라벨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미술이 꽃 피는 섬
제주도

해외문화 현장

클림트의 그림으로 매혹하는 빈 벨베데레궁전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④
코펜하겐 자성의 신전
덴마크 왕립도서관

소설가 김용태가 전하는 '내 이웃의 소확행'⑤

유리컵을 좋아하는 허영인씨
"행복이 유리컵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에나향 초대석

항일역사 그려내는
만화가 박시백

"일제강점기 35년은 우리사회의 원형"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②
'토지'의 무대에 자리한 공간
하동 박경리문학관

문화 현장

고창 한국지역도서전을 가다
책 감옥·책의 숲에서 휴식
지역출판물 교류의 무대

강제윤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⑤

진도민들에게 약 같고, 연인 같은
진도 참쌀 홍주 & 꽃게 회

트렌드 따라잡기

도전하는 시니어들
은빛 매력이 눈부시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②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

정윤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④
헤르만 헤세 VS. 토마스 만
법독일권 격정, 혼돈 그려낸 소설가

진시 리뷰
광주시립미술관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전

라이프 스타일

이진영씨에게 배우는 라탄공예
소품 3~4개 만들면 금방 제작 능력 생겼어

에나향 만난 이 사람
군제대 후 '핫 스타'로 복귀한 KIA 박찬호

몸과 마음 한데 묶는
엘로우 시티
장성長城

명정난 선비 문화를 배우다
술과 호수의 정취 만끽하는 길